

인간과 하천

1

River & Culture



함복희 | 강원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ham6204@kangwon.ac.kr)

물과 속담

내 고향엔 바다로 향하는 작은 강이 있었다. 평상시엔 하교하는 길에 그곳에서 물장구를 치기도 하고, 비 그친 후엔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 물가에서 노는 아이들은 자주 귀가 늦어졌다. 어둑해지면 어머니들이나 누이들이 독에 서서 빨리 와서 저녁 먹으라고 소리치곤 했다. 주말이면 머리를 감으러 나오는 중학생 언니들도 있었고, 빨랫감을 들고 나오는 어머니들도 있었다.

책을 좋아하는 나는 해질녘까지 독에 앉아 책 읽기에 집중한곤 했다. <제인어어>를 다섯 번 읽은 곳도 그 강가였고, 몇 번 신지 않은 꽃무늬 운동화 한 짝을 잃어버린 곳도 그곳이었다. 책을 덮고 일어서다 신발이 없어진 걸 알았을 때 운동화 한 짝은 이미 바다로 떠내려가고 없었다.

그런데, 한 해 걸러 한 번씩 그 강둑이 터졌다. 놀이터였던 강은 공포의 강으로 변했다. 둑이 터지면 그 해 농사는 거의 물 건너 간 것이었다. 언덕에서 서서 벌건 황톳물이 넘실거리는 논바다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핏기 사라진 얼굴로 저 눈은 네 언니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산 건데, 저 눈은 풍년이 들던 해에 소 두 마리 팔아 보태서 산 건데, 라고 말했다. 비가 막 패기 직전이었으니 벼 포기들이 자식마냥 얼마나 아까웠을까?

홍수가 있는 해엔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학교에서 비상소집을 했다. 교실엔 황톳물이 쓸고 간 흔적이 덩지덩지 붙어 있

곤 했다. 책상과 의자에 묻은 홍수의 흔적을 다 닦아내야 집으로 갈 수 있었다. 선생님들은 운동장에서 미꾸라지 잡는 학생들을 교실로 몰았다. 물이 덜 빠진 운동장 곳곳은 물 반 미꾸라지 반이었다.

그런가 하면 가뭄이 심한 어떤 해엔 봄 내내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 동네 사람들이 농사짓는 '뫓개'라 불리는 곳은 밤새 양수기로 물 퍼 올리는 소리로 시끄러웠다. 기우제도 지내고 물길도 내보지만 모 한포기 심을 수 없을 만큼 짝짝 갈라진 논바닥도 부지기수였다. 다행히 가뭄 심한 해엔 보리가 잘 자랐던 것 같다. 여섯 남매 먹여 살릴 보리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어머니는 무릎만큼 자란 보리밭가에서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 수염을 자식처럼 쓰다듬곤 했다.

한반도에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농경생활을 하면서 물은 '생존'과 관련된 그야말로 생명수였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류는 물을 중심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진화해 왔다. 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는 것이 물이었다.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치수(治水)는 늘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어 물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관리하였다. 물이 넘치거나 부족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역사적으로 슬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강독이 자주 터지는 마을에 살았던 때문인지, 어릴 때 “도독은 값나가는 것만 들고 가는데 물은 모든 걸 휩쓸어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다. 인간이 물을 어떻게 관리하던 때로는 물의 재앙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를 통해 전율을 느끼며 실감하고 있다. 피할 겨를도 없고 손 쓸 사이도 없이 인간이 세운 것들이 한 순간에 휩쓸려 쓰레기 더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 앞에 무기력증을 느낀다.

불을 사용할 줄 알면서 인류는 끊임없이 도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어 인간으로서의 한계에 도전하며 욕망의 계단을 무한대로 높여간다. 인간이 작고 나약한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은 대가를 우리는 온몸으로 치른다. 옮겨올은 유난히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오죽하면 춘천의 한겨울은 29한(寒) 2온(溫), 즉 29일 춥고 2일만 날씨가 풀린다는 자조어린 말들을 했을까? 인류가 개발한 각종 문명은 남극과 북극 기층에 영향을 미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녹아내리도록 하고, 얼음 덩어리는 지구를 축게 하니 온난화로 접어드는 지구가 차가워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은 물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다. 정월 대보름이 시작되는 새벽 우물에 뜬 첫 달을 퍼 올리기 위해 동네 아낙끼리 다툼을 벌였다는 기록도 있고, 정월 대보름 날 물가에 서 용

신을 향해 소원을 빌기도 하였다. 삼월 삼짇날에는 물가에 나가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 풀을 밟기도 하고, 단오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부정한 것을 씻고 세상의 술한티 꼴을 씻어내려 했다.

우리 속담 중엔 특히 물과 관련한 내용이 많다. 속담이 생활 속에서 얻은 삶에 대한 진솔한 진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물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담은 이언(俚諺)·속언(俗諺)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속담은 길이가 짧고 간결하며 표현이 정확하다. 그래서 잘만 사용하면 상황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속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일상의 경험에서 ‘조어(造語)’, 즉 말이 만들어진다. 다음으로 만들어진 속담은 같은 문화권과 언어권 내에서 동의어를 얻어야 한다. “아, 맞아. 그렇더라.” 하는 인가(認可)의 과정을 거친 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속담은 격언과 다른 점이 있다. 격언은 암기가 어렵고 필요한 경우에 찾아보아야 하는 반면 속담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된다. 그래서 속담은 기억하기 쉬운 어투와 짧은 문구로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격언은 말한 사람이 함께 전해지는 반면 속담에는 처음 만



든 사람이 없다. 일상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가 기억하기 쉽도록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속담을 즐기고 전승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가 담긴다. 속담은 이처럼 같은 생활권에서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용인을 얻어 만들어진 상황 표현의 공식 같은 것이므로 속담의 유형을 통해 당대의 문화나 관습, 사고의 유형 등을 살피는 것이 가능하다.

인류는 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일으켰고, 우리나라 역시 물을 중심으로 농업을 천하지대본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따라서 속담에는 물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물 관련 속담 몇 가지를 살펴보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물과 관련하여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속담이다. 여기서 물은 위기나 절박한 상황을 말한다. 지푸라기는 당연히 하찮은 물건이다. 하지만 사정이 다급하고 절박해지면 아무 것이나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0.01%의 가능성이 있어도 살기 위하여서는 하찮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 이런 절실한 마음을 구구절절 말하는 것보다 속담 한 마디로 표현했을 때 상황에 대한 전달이 빠르고 효과적이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 더군다

나 절박한 상황일수록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말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일수록 진실이 말로써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 때 속담으로 대신했을 때 정서적 공감대가 확보된다. 즉 “내가 지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들은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였는가를 자신의 정서와 경험으로 이해하고 상상하게 된다.

사기꾼들이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은 말만 잘 하면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고 믿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절박해지면 어떤 가능성이라도 붙잡고자 한다. 이런 절박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판치는 곳이 환자들 주변이다.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렸을 경우 약간의 가능성만 있어도 환자와 가족들은 대가를 치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비싼 의약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 등에 혹하는 것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사람들이 바로 취업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내근 직원을 뽑는다는 구인광고에 양복을 입고 가보면 일단 물건부터 사도록 하고 외판을 하도록 하게 하는가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이 보장된 곳에 취업을 앞선해 준다는 학원도 고소득과 취업 보장은 커녕 학원



비와 교재비만 챙기는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취업에 대한 간절함을 미끼삼는 것이다.

“깊은 우물은 가뭄을 타지 않는다.”

이 말은 깊은 우물은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듯이 기본이 튼튼하거나 능력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속담 속에는 우리민족의 슬기와 가르침이 있다. 또 삶을 낙관적으로 살아갈 것을 바라는 가르침이 들어 있다. 삶 속에서 얻어진 이러한 진리들은 또 다시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기도 한다. 즉 속담을 통한 깨우침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뭄을 대비하고, 스스로 깊은 우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내공을 다지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 스스로 깊은 우물이 되어야 어떤 가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속담은 이를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므로 우리의 정신문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폐기처분되어야 하거나 스스로 소멸된 속담도 있지만, 대부분의 속담은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진행형으로 남아 필요한 경우마다 삶의 자세를 다시 새겨보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상황을 압축한 말의 맛을 연출하기도 한다.

“기름에 물 탄 것 같다.”

이 속담은 서로 화합되지 않는 개인 간의 관계나 세력들 사이의 일컫는 말이다. 기름과 물은 액체여서 언뜻 보기에 잘 섞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성분이 달라서 섞일 수 없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은 물은 극성물질이고 기름은 비극성물질이기 때문이다. 물질은 크게 극성물질과 비극성물질로 나눌 수 있는데 극성은 극성끼리, 비극성은 비극성끼리 잘 섞이는 성질이 있다. 서로 섞이지 않을뿐더러 두 액체 간에 밀도 차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다른 층을 형성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정치적 사안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현상을 보인다. 보수는 진보든 정치적 신념이 지나쳐 소통이 어려운 것이다. 이런 현상은 ‘차이’와 ‘다름’을 인정할 줄 모르는 우리 민족성과도 관련이 있다. 한반도에 우리 조상이 농사를 지으며 정착생활을 할 때를 기록한 중국의 《삼국지위지동이전》을 보면 우리민족은 농사 시작과 추수 무렵에 반드시 하늘에 제를 올렸는데 반드시 남녀가 무리를 지어 몇날 며칠을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 불렀다고 되어 있다. 원활한 농경을 위하여 집단을 중시했을 것이다. 이후 조선시대의 유교 역시 집단을 중시하는 이데올로기였다. 집단은 집단 구성원들을 갈등 없이 다스리기 위해

동질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너와 내가 한 집단이면 모든 게 허용되고 다른 집단이면 틀리다는 배타적인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우리가 잘 못 사용하는 어휘 중 하나가 '틀리다'이다. 90년대 초반 어떤 학생이 수업시간에 '다르다'의 자리에 '틀리다'를 세 번이나 사용한 내 어휘의 잘못을 메일로 지적해왔다. 정신이 번쩍 들어 내 언어습관을 검토해보니 매번 '다르다'의 자리에 '틀리다'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후에 그 두 단어를 제대로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 '다르다' 자리에 '틀리다'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른 집단 또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과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는 '다르다'의 사용에 계속 인색할 것이고,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의 이야기는 관계의 악화를 각오해야 하는 무서운 주제가 될 것이다.

“고기가 물을 얻은 격이다.”

이 말은 물 관련 속담 중 가장 좋은 속담이 아닐까 한다. 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한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는 물을 얻지 못한 고기가 얼마나 많은가? 자신의 능력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물을 얻는 것이 더 이상 상식적이고 보편적이지만은 않다.

물을 얻은 물고기들이 물을 갈망했을 때를 잊는 경우가 있다. “고기는 물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말은 물을 갈망했을 때의 초심을 가지게 해주는 말이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다. 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사람도 늘 먹고 마시는 밥, 물, 공기, 가족 등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워져서야, 물이 귀해져서야, 건강을 잃고서야 인간은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된다.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기다가 자연의 재해를 입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생각없이 상처를 주다가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 등 평상시에는 고마움을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존재의 귀함을 알게 되는 것은 겪지 않아도 되는 시행착오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속담은 민족의 지혜와 정신을 담은 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래 유교를 사상과 관습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특히 조선시대는 충과 효를 핵심으로 하는 유교 이데올로기에 갇힌 시대였다. 충, 효 모두 집단 내에서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였으므로 개인의 능력이나 개성보다 상하관계를 우선하였다. 그런데 이 속담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혜택과 권리를 누리는 만큼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가져야 한다는 양반들의 자기성찰에 대한 양심선언쯤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현대사회에서 보기 힘든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현대판 속담이다. 공자의 ‘學而時習之’는 배우고 때에 맞추어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할 때가 오면 몸소 행동에 옮길 줄 알아야 함을 말한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知行合一’ 역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는 것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배움이 의미가 없다는 가르침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 어른들은 어떠한가? 알고 있는 것을 입으로만 후세들에게 가르치지는 않은가? 혹여, 어른들은 입으로만 말해도 아이들이 알아서 실천까지 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배움은 어른들의 실천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는 세상은 어떠한가. 너무 자극적이고 험하지는 않은가. 우리 어른들이 스스로 맑은 윗물이 되는 것이 보다 선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낙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속담은 옛말이라고도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전의 시대에 만들어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우리가 새겨야 할 깊은 지혜와 삶의 깨우침이 들어 있다. 지식보다 지혜로 살 때 좀 더 인간다워지는 게 아닐까. 물과 관련된 속담을 더 소개해 본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깊은 물이라야 큰 고기가 논다.
낙수 물은 떨어지는 데만 떨어진다.
낙수 물이 냇돌을 뚫는다.
냉수 먹고 이 쭈신다.
물 먹은 배만 튀긴다.
물 밖에 난 고기.
물 본 기러기 꽃 본 나비.
물 샅 틈 없다.
물 섞인 밥도 목이 멘다.
물 쓰듯 하다.
물 잃은 고기다.
물도 빈병짜리가 출렁인다.
물도 아껴 쓰면 용왕이 좋아한다.
물도 얼음이 되면 부러진다.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빠져도 정신을 잃지 말라.
물에 빠져도 주머니밖에 뜯 것 없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보릿집 내라 한다.
물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까 걱정한다.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물이 얇으면 돌이 보인다.
미꾸라지가 온 물을 흐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부부간 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
산 넘어 산 있고 물 건너 물 있다.
소금도 먹은 놈이 물컨다.
시루에 물 붓기다.
어린이들 보는 데는 찬물도 못 먹는다.
옆지른 물 쓸어 담기다.
연꽃은 흙탕물에서 핀다.
염소는 물도 안 먹고 물똥도 안 싣는다.
우물 안 개구리이다.
우물도 한 우물을 파야 물이 난다.
우물물은 풀수록 맛이 좋아진다.
우물에 가 송농 찾는다.
접시 물에도 빠져 죽는다. 🐼